

충칭(重慶)시 량장신구(兩江新區)의 비준과 전망

오종혁 (중국 권역별 · 성별 연구단)

충칭(重慶)시에 위치한 량장신구(兩江新區)가 지난 5월 7일 국무원의 최종 비준을 받음으로써 상하이 푸둥신구, 텐진 빈하이신구와 함께 제3의 핵심 신구(新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량장신구의 발전구상과 전망을 살펴본다.

1. 량장신구 비준과정과 의의

□ 량장신구는 2008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에 의해 최초로 기획되었음.

- 시 정부의 노력 끝에 2009년 국무원이 발표한 <충칭시 도농개혁과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약칭 '3호'문건)>에 정식으로 량장신구 설립 문제가 포함되었음.

- 이에 앞서 2008년 11월 량장신구 내에 위치한 량루춘탄보세구(兩路寸灘保稅港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내륙 개방 기지의 기반을 마련했음.

□ 2010년 5월 7일 정식 비준된 량장신구는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와 텐진(天津)의 빈하이(濱海)신구에 이어 지정된 중국 제3의 부성급(副省級)신구임.

- 특히 량장신구는 내륙 최초로 비준된 신구로서, 향후 제조업기지와 교통허브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충칭시는 량장신구를 △ 서부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주요 관문 △ 창장(長江) 상류 지역 비즈니스·물류·금융허브 △ 국가 주요 첨단제조업 및 하이테크 산업 기지 △ 내륙에 위치한 국제무역통로 겸 수출품가공기지 등으로 육성할 계획임.

□ 량장신구는 서부대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과거 중국은 지역경제가 산업을 통한 경기 진작과 더불어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경제발전정책을 발표해왔음.

- 그러나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 시행 10주년이 지났지만 동부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였음.
- 량장신구는 내륙개방, 도농통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소재지인 충칭시 뿐만 아니라 △ 청위경제지역(成渝經濟帶)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을 10%포인트 증가시키고 △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시의 수력발전, 광산 등 에너지산업 성장을 5%포인트 증가시키며 △ 산시(陝西), 광시(廣西), 후난(湖南) 등지의 제조업과 교통운수업이 량장신구를 거쳐 서부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서부지역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2. 량장신구 개요와 발전구상

□ 개요

- 량장신구는 충칭시 도심지역의 창장(長江) 북부, 자령강(嘉陵江) 동부에 위치함

그림 1. 량장신구 위치도



자료: 량장신구 홈페이지(<http://www.liangjiang.org>)

- 총면적은 1200 km²이며, △ 도시구역(建成区) 150km² △ 수리(水利) 및 생태지역 650km² △ 개발예정용지 400km²로 구성됨. 량장신구는 베이부신구(北部新區), 량

루춘탄보세구가 핵심지역이며, 장베이(江北), 위베이(渝北), 베이베이(北碚) 3개 구에 걸쳐서 조성됨.

그림 2. 량장신구 계획도



자료: 량장신구 홈페이지(<http://www.liangjiang.org>)

□ 발전계획 : 량장신구는 2009~2020년간 3단계 발전계획을 추진함.

- 우선 △ 2009~2010년간 비준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환경을 제고하며, △ 2011~2012년간 세계 500대 기업 중 200개를 유치하고¹⁾ 무역액 300억 달러를 달성하며 △ 2013~2020년간 공업생산액 1억 위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대 핵심산업은 철도, 전력장비(원자력, 풍력), 신에너지 자동차, 국방, IT이며, 국가급 R&D센터 설립, 과학기술 응용센터, 재해 예방 및 대비 데이터센터(灾备及数据中心) 등을 유치할 예정임.

3. 향후 전망

□ 량장신구에도 상하이 푸둥신구, 텐진 빈하이 신구처럼 토지, 금융, 세금 등 분야

1) 2010년 1월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중 154개 업체가 충칭시에 투자, 진출하였음.

에 다양한 우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충칭시는 현재 서부대개발 우대정책 중 하나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며, 내륙유일의 보세지역인 량루춘탄보세구, 시용종합보세구(西永綜合保稅區²⁾) 등이 소재하고 있음.
 - 향후 투자환경의 개선과 우대정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출 가공기지의 역할 보다는 아무래도 서부 내륙시장 진출과 내륙 물류기능 강화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충칭은 도심에서 가까운 이취안(一圈) 지역(한 시간 내로 접근가능한) 이외에는 투자환경이 부실하고, 전문 인력이 동부연해지역에 비해 부족하며, 연해지역보다 물류비용이 비싸다는 점 등 제약조건이 있음.
- 이취안지역에만 공장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함.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충칭 어디에서나 도심과 4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철도,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음.
 - 외자기업 관계자들은 충칭이 동부 지역에 비해 임금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개방도가 떨어지는 탓에 창의력 있는 전문인력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함.

(량장신구 홈페이지, 중국 경영보, 제일재경일보, 차이징(財經), 충칭시 정부홈페이지 참조)

2) 중국의 9번째 종합 보세구이며, 2009년 HP가 3,600만대 규모의 노트북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함바 있음. 대만의 폭스콘(Foxconn), 인벤텍(Inventec) 등도 입주하여 향후 전세계 최대 노트북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됨.